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홍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준



화순 박순철

# 나주시, 행정 오류 재발방지 총력

## 지난해 면 직원 미숙한 업무처리 관련

### 읍·면·동 직원 대상 직무교육 등 실시



나주시는 지난 해 관내 면 직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건과 관련해, 관내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지난 22일 나주시는 청사 전산교육장에서 20개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등록관련 법령 및 민원실무교육을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초 언론보도 후 시는 해당 면의 실태조사와 병행해 공문 시행을 통해 각 읍·면·동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를 해당 업무에 속임된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재배치하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입력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나주시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진을 기하는 한편, 해당 직원 징계 조치 등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과 시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 농어촌공 순천광양여수 봄철 가뭄에 적극 대처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는 2018년 봄 영농에 차질 없이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기관 협업으로 가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지난해 봄부터 이어온 가뭄이 올해까지 계속되어 최악의 가뭄(2017년 전남강수량 936.5mm로 평년 1,390.9mm 67%에 그쳐) 상황이 우려된다.

순천광양여수지사는 봄 가뭄 신제적 대응을 위해 순천시와 협업하여 작년 겨울부터 별링면 일대 배수로 물막이 작업을 실시하여 순천시 소유 대곡저수지에 공사 대곡양수장을 기동시켜 저수지 물채우기(확보 수량 200m³/일)작업을 실시 중에 있다.

또 가뭄 우려지역인 대룡제등 4개 저수지에 수증펌프(150mm\*15kW\*6개소)설치를 위한 사전용수확보 작업을 완료하고 가뭄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청에 가뭄대책사업비를 적극 건의하여 소규모수계연결 사업(도비 2억원)비를 교부받아 관정개발(4개소)을 4월초 조기 준공 목표로 사업실시 중에 있으며 농업 용수 공급에 차질없이 준비 중에 있다는 방침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 화순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선정 군 단위 1위

화순군은 전남도가 지원하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에 78명이 선정돼 전남 도내 군 단위 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화순군에 따르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은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청년들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저축하면 전남 도가 동일한 금액인 360만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총 적립금 720만원을

예 연 2.5% 수준의 이자 혜택도 보게 된다.

본인 적립금의 두 배가 넘는 목돈을 만들어 구직활동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주거비, 학자금대출 상환 등 자립기반을 갖추는데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화순군은 지난해 140명, 올해 83명 등 총 229명이 신청해 78명이

해가겠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17일 나주시는 부시장 주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 실·과·소 부서장 및 20개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것을 주문하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해당 직원은 1.15일자 타부서 대기발령 후, 이달 22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일련의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과 책임감 있는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관련 직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직자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선정돼 도내 군 단위에서 가장 많이 선정돼 3년간 2억8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군은 이러한 성과는 지역 청년협의체 소통창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및 읍면 회의·방송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흥보한 결과로 분석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광양시, '숲 유치원' 내달부터 운영

11월까지 81개 유치원·어린이집 참여 숲의 소중함 배워



광양시 휴양림사업소는 오는 3월 5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6~7세 유아를 대상으로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숲 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숲 유치원'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으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감성과 창의성을 키

우는 자연체험활동 프로그램이다.

시는 지난 26일 숲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치원과 어린이집 81개소와 2018년 숲 치원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숲 유치원 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모두 7번 운영되며, 백운산 자연휴양림의 황톳길 생태숲, 영상체험관을 중심으로 숲 해설 전문가 4명을 배치해 체험학습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봄, 여름, 가을 계절별 숲의 변화 등을 보고 느끼면서 숲의 소중함을 배우며, 아이들이 숲과 자연 속에서 교감을 통해 감성과 창의성을 키

기르는데 주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시 휴양림사업소는 성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주말에 숲 해설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 휴양림을 찾는 시민들에게 숲길을 걸으며, 휴양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자연 친화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재희 휴양림관리팀장은 "오는 4월 광양복지문화체험장이 개장이 되면 숲 유치원과 연계해 목재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숲속의 놀이터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이들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하는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병행



장성군

## '건강마을 가꾸기' 건강지도자 양성

### 광양시, 5개 마을 신규 31명 대상 1차 교육 실시

행됐다

강사로 나선 심미정 교수는 "주민주도형 건강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주민건강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자기 지역 환경에 따라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화합과 배려의 마음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4개 건강마을에서부터 시작해 추진되고 있는 '농거동락 건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난 해 10개 마을, 올해는 5개 마을을 추가해 총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양=김충권 기자



## 중학교 새내기 적응프로그램 실시

### 순천교육지원청 Wee센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2018학년 한 해 동안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보드게임 등을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죄아초등학교의 한 학생은 "중학교 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나만의 행복한 정원 만들기 퀴즈클레이 같은 새로운 활동을 해보니 재미있었고 중학교에 가서도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교육지원청 윤종식 교육장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앞으로 변화를 좋아하고 감각적인 청소년들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